

文 漢

西遊記 卷二



心猿悟一已

Inch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Centimetre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White Brown Black

1 록 목 기 유 서

西遊記前集第二卷

서유기전집대이권

目錄

第十一回

陳光蕊赴任逢災

江流僧復讎報本

第十二回

玄奘秉誠建大會

觀音顯像化金蟬

第十三回

陷虎穴金星解厄

雙叉嶺伯欽僧

第十四回

心猿歸正

六賊無踪

第十五回

蛇盤山諸神暗佑

鷹愁澗意馬收韉

第十六回

觀音院僧謀寶貝

黑風山怪竊袈裟

第十七回

孫行者大鬧黑風山

觀世音收伏熊羆怪

登錄番	3148
分類番	
圖書番	

第十八回 觀音院三藏脫禍 高老莊行者降魔
고로장행자강마

第十九回 雲梯洞行者收八戒 浮屠山玄奘受心經
부도산현장슈심경

第二十回 黃風嶺唐僧有難 半山八戒爭先
반산중팔계경선

第二十一回 八戒大戰流沙河 木吒奉法收悟淨
목탁법슈오정

第二十二回 三藏不忘本 四聖試禪心
스성시선심

第二十三回 萬壽山大仙留故友 五莊觀行者窈人參
오장관행자요인삼

第二十四回 三藏不忘本 三藏不忘本

西遊記前集卷之二

서유기전집권지이

譯述者 朴健會

○데십일회 진과예부임봉지 강류승복슈보본

1 기 유 서

각설히 주홍등현에 흐슈지잇스니 성은진이 오명은 악이 오자 노광에 니디노로이 짜에 서스니 인물이 탁월하고 문장이 출류하며 형실이 숭고하고 무덕년만에 과거를 뵈시 니 모친장씨 씨교하되 쇼자십년을과로이 글을 읽엇스니 이제경스에서 과거를 뵈신다 하온즉 쇼지슬하를떠나 오미어렵스오나 오리지안야 도라올거시니 혼변경성에올나 가고저하느이다장씨왈되 다른조식이업고다만너하나를바라더니 네원이여츠하니 너난경성에올나가깃분과별을전하라하고 길에 쓸반전과부리는종하나를슈니 장 악이로모를하직하고 형리를츠려하야하러날만에장안에 이르러과장에드러가니 런하선비구름모이듯하엿더라글을지어박치리장원에빠혔스니 황상이아름다이어 기스문현각한림학을하이시니 명망이조야에진동하더라삼일유가하미무동양키 와성소고악을거나려장안되로상으로왕티하니관광조신선갓다하더라이씨에모든 신은키산이시임좌승상이니귀흔이조정에제일이라그러나다만일너를두엇스니일

홍은만당파라 아름다운 과질이 세상에 새혀나니 은승상이 그상적흔비필을엿지못하
 여근심하더니 이번과거에던하선비만히모였는지라 스스로이로되금번과거에장원
 으로서회를삼으리라 하여진좌편에누각을화려이뒀여소저를그루에두어가량을맛
 나가던방울을던져비필을정하라하니 소저미양다락에올나보되숯사람중에하낫
 도마음에맞는니엿더니 이날진악이빠여는풍채와거룩흔위의를차려루하로지나거
 날소저보고깃거방울을던지니그방울이구을너진악의품속에드니진악과좌우늘나
 더니진학식승상부에이르러되오려와음을고흔디승상이디회하스진학스를청하여
 보니용외동당하고풍채현앙하여당시제일이라디회하야관디하여보되고즉시디파
 를보되여청흔하니진학식허흔디은승상이즉시탁일하여화축지례를이루니신낭신
 부용외출흔이피츠겸손할비엿더라진학스모친을싱각고도라가고조할시화상이
 허치아니시고벼살을도도와간의디부름하이스고향에가지못하게하시다일々은
 디부표를올너로모를봉양코조말디를청하온디화상이전지하스갑쥬조스를하이스
 니진디부대회하여승상세비별하고는쇼저로더부러행하여흥릉현에이르러모모를
 뵈음고함씩부임함을고하니로모반기며깃거즉시행리를슈습하여표진이란물가에
 이르러만화점에주인하코혈숙할식조사보니문밖게서금식리어를팔거늘로모를봉
 양코조은전일관을주고스니그리어눈이붉고보기에비상하거늘심쥬에헤오디이반
 다시룡이될거시라하고즉시물에넛코도라와로모세이일을고하니장씨디회왈디아

히룡을노와스니일정복을더하리로다하더라초시날이성열이라장씨병들어헛치
 못하되도리하여성향하거던가려하코아조를몬져가라하니조사부득이은소저와의
 룬하코조흔절을어더로모를머무르게할식금은양찬과비복가동을머물너두고소저
 로더부러발행하여양주사에다사큰비에오르니스공유홍이견군을거너려뚫을달
 아순풍을만나헛하여가더니홍주지경에이르러유홍이은소저의절식인줄여어보고
 저의동뉴리피와의론하코비를여홀에벗치고밤이이윽흔후두놈이병괴로히다인마
 와조스를물에드리쳐죽이며조정에서주신병부와온갖문서를다아스가지고강주지
 경에이르러비논리뢰를주고스스로진악이라하코강주에부임하여조스아중에엄연
 출관하여좌괴하니아모도알니엿는지라잇씨진자스와모든하리물에서다죽어시신
 이물에흐르되오직진자스의시신이갈아안지니순히채사급히룡궁에보흔디룡왕이
 슈죽다려왈너저지음에변하여리어되여물가에갓다가어부의게잡혀하마죽을너
 니다헛이스람의구함을남어사라났더니오날々만났스니날을살운은혜를갑호리라
 급히문서를민드려야체를주어홍유성황모도디신세문서를벗치니모든신령이진심
 하여진악의흔뱃를츠야체를맞겨룡궁에보되니룡왕이즉시녀을진악의시신에벗
 치고룡왕이천히진악의시신을구호하여온갖선약을드리니이윽고진악이정신을슈
 습하녀룡왕세고왈나는인간강쥐조스진악이러니련은이용승하와강쥐조스를제슈
 하되이부임하러가옵더니물가에셔비를라코건너다가스공유홍의란을판나천공일

행이익슈원스호오니티왕의은덕으로쇼성이홀노스랏스나무승유의홀이잇스리잇
고룡왕왕그대난아직일신을안보호여이곳에잇스면자연일문이단취호고영화로이
만날스이잇스니방신을보호호라진악이지삼스레호니룡왕이전에목숨스로든슈말
을이르고일좌루각을정호여세월을보너려호니비록일신은안한호나조운모우에모
친을스럼호고세월을보너더라
츠설은쇼저이갓흔참화를만나엇지일시나살의스잇스리오마는복중아와지원지슈
를갑고즈호여세월을보너더니강쥬로간지오삭만에유홍이나간썰에아달을나호니
금빛치하날에쏘이며공중으로셔이르대맛당히아히를바리면후일에원슈를갑호
리라호거날더욱고히여겨바리려호되참아못호더니유홍이드러와그아히상모비범
홀을보고제즈식이아니니후환이잇슬가호여너다가바리라지축호니은쇼제망극
호나할일업셔아히를함에넛코쇼음으로심지를민드러호뜻을새담으고호뜻을아히
넛에물여누습호여드러가게호고아히원편말가락을세무러피를너여김적삼에생
년월일시를써갈오대아모나어더길으면은혜를갑슬사람이잇스리라호고함에너흔
후통곡호고양즈강물에섞우고가만이하날제원슈갑기를축슈호더라츠야에금산스
홍일대스홀연양즈강을바라보니물의금광이찬란호거날고히이너겨상즈로호여곰
함을건져다가보니문득호낫산아히라불상이너겨젓잇는계집을어더맛겨기르니세
살에말을호며인물이총명호여하느홀가룻치면얼을동호는지라대새깃거사랑호

여호더니나히십세지나미글이문장이라대스일홀지어현장이라호고법호는삼장법
스라호니큰중에소임을당호다현장이나히십팔세에이르러일스은어른중에교훈을
듯지안니커날그중이로호여쑤지져왕아비업는거지가장사진체호는노흔대현장이
로호여올며즈기니력을무르니대스전스를일으고그김적삼에쓴혈서를너여주니현
장이뵈아보고통곡호며스승제호직왕대져스름이부모를모르면세상에용납지못호
리니이제데즈산에나려가부모를널너츠진후다시도라오리이다호고비별호고산
으로나려가니라선시에장씨아즈를보너고절에서도병할식류슈갓흔세월이슈습사
이지나미장씨병이꽤츠호여일기청명호니강쥬셔오지아니호미가장민망호더니
츠년이진호고명춘이되미반전이다진호거날장씨비즈를하느식인간에파라도셔을
이으니여러세월에능히견대지못할뿐아니라아즈의성스를모르미상성이절호여
량안이점스어둡더니문득페딩호여겨히스름을아라보지못호니만화점스름과촌민
등이즈스의일을고이히너기며장씨를불상이너겨하로두씩씩음식을지어주니장씨
바다먹고명을보전호나눈물노세월을보너더라이적에유홍이강쥬즈스를갈인후양
쥬유화초에와스는지라잇썰진현장이한집에드러가동양호니은시맛참쥬럼안에서
보다가그상모진즈스의얼골과갓호며성음이방불호거늘가장놀나고반겨호나스식
지안잇코탕식을주며왕네어너절에잇는다현장이대왕금산스에잇나이다호거늘
다시못기번거호여유홍다려왕우리조상부터불도를승상호였스미너그전에발원호

기를삼백중의보션을지어신기마하엿더니지금까지못하여그러흔지쌈에흔중이막
 대로머리를치며보션을달나하더니쌈을써머리압파견대지못하여라하거늘유홍
 이고지듯고백승홍등을니주며슬빅별보션을밧들고지를거룩히차려주거늘은씨배
 를타고금산스에가부쳐세공양하기를과흔후모든중을불너안치고대스부터상제서
 지은씨천히보션을신기더니흔절문중이원편발을밧지아니하거늘모다권하여벗겨
 세니그중의들지발가락이엿거늘은씨분명이아진줄알고반겨하며슬품이무궁하여
 대중을속여알볼스를시작할제이중이쌈에되이더니오날에와보니엇지신과치아니
 리오하고현장을다리고붓쳐압히나가주면니로셔발가락을니여현장의발가락업는
 대스이니흔연발가락이절노붓거날은씨그제야전후지닌든곡절을자세이이르고서
 로붓들고동곡하며일봉서찰을써주며알네이글월늘가지고빨니장안에드러가외조
 은승상을쳐져외읍고원슈를갑게하며도진물가에네친도모를쳐져보고가라하며
 길에서쓸금은을만히주고집으로도라가니라현장이모친을리별하고형할새여러날
 만에도진물가에가촌민다려십팔년전에강쥐조스전대부의대부인장씨하처를무르
 니가릇치거날현장이흔집안에아가보니일위부인이모발이빅설갓흔대양안이페
 링하엿거늘현장이향전하여진조스의대부인일을무르니장씨전후스를일은대현장
 이저배동곡하고금은을만히두고나려을씩오리이다하고하직흔후바로장안에이르
 러은승상을차즈니스름이사로대대결에서동편으로큰문난집이라하거날그리로

주차슈문조다려알빈승은승상의권족이러나승상세외오려와나이다흔대슈문조드
 러가고하니승상왈니권당애중이엿거날괴이흔일이로다하니부인왈스희와쌀의괴
 별을못드른지십팔년이라이직쌈의별노되는일이업더니간밤쌈에녀의얼골이분
 명이되니무숨소식이왔는가하나이다승상이올혀너겨져시그중을브르니현장이드
 러와눈물을흘리며절하여왈처음뵈오니연고를아지못하오리이다하고품으로셔일
 봉서찰을니여드리니승상과부인이글월을다못보와셔일성동곡하고엿더져동곡하
 다가겨오인스를쳐려전후스를못고승상이명일도화에드러가티종세전후말슴을일
 사하고하고원슈갑기를유청흔대티종이통해이너지스양쥬조스리달의게도셔를나
 리와도적을잡으라하거니은승상이도적을잡으려하여천히양쥬로나려가니관로
 와군스를도발하여유홍을잡으려가니이날유홍이몽식이장불길하거날정히근심하
 더니문득관병이다라드러잡아미니은씨부친과아조와슴을듯고말바당으로뛰어나
 려승상을붓들고동곡왕망극흔화를만나욕을참고죽지못함은복중아히잇스미오날
 날을바라미러니임의원슈를잡아갑혔스니런저에용납지못할죄인이라하고방에드
 러가자결하려하거니승상과현장이붓드러말녀왕임의원슈를갑하스니조진물가만화
 점에서모를보지아니코또영혼에제스아니하리오승상이양쥬관에도라와유홍을
 하옥하고리피잡기를지촉하거니이옥고양쥬관군이리피를잡아와거늘능지쳐참하고
 뉴홍을합거이니코승상이조스의게쳐스흔후은씨와현장을장부인세보더니장부인

이은씨를붓들고방성티곡하다가흔절하니현장이붓드러구호하고죽은물가에제전
 를갓초고승상과모친을되시고뉴홍을잡아칼노비를갈나간을녀송경하더니잇
 덕순경야치나왔다가슈정궁에드러가이스연을고하니류왕이진랑다려왈이제그티
 제상에다시나갈연분이잇고니게은혜중하미니옥제제발팔야부즈상봉케하엿느
 니시방물가에그티모친과아즈원슈를갑고슈륙을정성으로하나아가라하고오원
 슈를명하여진랑을업어다가물가히녀노흐니제인이모다진랑의나음을보고귀신
 인가의심하여하더라진랑이모친압하나아가공슈지비하고룡왕의은혜를입어다
 시사라움을말하고룡곡하니장부인이추언을드르미머릿눈이문득쓰이는지라현
 장이부주제지비하고전후곡절을일스이고하니진랑이올며수상세되고뉴홍의시신
 을만점이나오리라하다은씨잇씨를당하여자결코져하거늘진랑이나아가옥슈를붓
 드러위로왈오날스원슈갑기는그티의덕이라무슴히물이잇스리오하고만단키유하
 니은씨다만통곡할뿐이어늘모다구하여만화점에도라와잠잔쉬여진랑이은승상을
 되시고모친과쳐저를거나려장안에드러와향사세스은하고은승상부중에슈삼삭을
 머무다가진즈스모부인파은씨를다리고전리에도라가여성을안과하고현장은금산
 스로도라가니라

○제십이화 현장병성건티회 관음현상화금선

각설이씩태중황데던하명승을모화상중하삼층을분하여구월초숨일에무치티회를

시작하야철스스십구일정성으로지니라하시고오석비단으로중의의관을만드러진
 현장을탑하에부르사천히주시니현장이밧즈와스은하며성덕을일갓고물너나니
 이씩는정관심삼년기희갑즈구월초삼일계묘의티선법스진현장이런하명승오빅을
 거나려장안티상국스의모화무치티회를시작하니당번보키는바람에부치고빗는
 안키와상셔의괴운이법당좌우에가득하여오석치화에씩엿스며괴이향하는원근
 에떨치고빗는광치눈에쏘이다라츠시태중황데목욕지계하시고문득빅관을거나
 러티상국스의이르스천히분향하시고제불과라한세비례하시며물너나시니티선법
 스진현장이일천오빅도승을다리고절하은후에인하여무치티회도장을시작하고큰
 법을강론하며경을너으니소리방곡에요량하거늘태종이보시고깃그스중의
 계전지하스왈너히각스정성을시작하여일절게으르지말며큰법스를무스히지니며
 명부에보응하논복이잇슬거시오현장이티스를다리고돈슈스은하더라이날중들을
 세편의난화지하기를밧치니임의던식이저물거늘밧치는날에태종이다시오시려하
 시고환궁하시니라잇씨에관세음보살이여리의명을밧아장안에와경가질너갈스름
 을엇지못하더니무치티회하시노티던하찰중이모다모힌중에웃듬대전법스진
 현상이형실이높고본대여리제즈금선즈로인간에나와다하거늘보살이깃거목락을
 다리고변하여결승이되여더럽고남누흔웃을입고금논가스와구환석장을수습하여
 가지고괴별을듯보려져저거리로가더니한중이거동을보고그중이놀나문왈져화상

은가사와셔장을팔녀는다보살이답호되팔는호면팔년니와가스와셔장갑을합호
 면철천량이니네능히살소나그중이이로대이화상은풍중들인화상이로다가스를
 호반입고부쳐되리라호여도갑이넘어만타호리로소니엇지잇처럼과호호호더라
 보살이동화문밖그로가다가지상소우를만나덕도연이피치아니호니소위그가스와
 셔장이상셔의괴운이어리엇슴을보고괴이히녀겨말을잡고이로대져중의가스와셔
 장을팔거신다보살이답호팔면팔녀니와가스와셔장갑은합이철천량이로소이다소
 위왕이무슴과특호일이잇관대갑이그리만호보살이대왕가스와셔장이본대괴특
 호되잇스니갑을아니박고그저줄스람도잇고갑을박고도아니줄스름도잇는이다
 호위왕괴특호고괴특지아니호은엇지미호보살이답호마음이용호고어진일을만이
 호선지임으면빅만료회에버셔는고지옥에도빠지아니호며하날에자옥호화를만
 나도절노버셔나는니괴특호일이요스나온이가불법을승상치아니호며어진일을형
 치못호면지옥으로가는니이런사람의게는돈을만히주어도팔지아니호나이다소우
 그중에말이며모양을보니비록결승이나가장괴이호지라이에두중을다리고결녀
 에드러가황제회오물청호대소황문이니전에드러가대종제소우말슴을아뢰니대종
 이즉시두중과소위를불너드리미소우드대여두중의말과가스와셔장팔녀호음으로써
 다려음을고호니대종이대회호스셔장과가스갑을무르시니그보살이단지하에서레
 도아니호고섯거늘대종이명호스가스를펼치라호여보사니과연괴특호보비어늘보

살다려이르스대집이대법장로를괴이지아니호리니이제무차대회를시작호여련하
 명승일천오빅명을모호니그중웃듬대선법사진현장이큰덕이잇고형실이높호니
 정가호갑대로집이주고사셔진현장을주고조호노라보살이스에목탁으로더부러합
 장호고왕그대선법사과연덕이잇고형실이높호면말원호여호훈도박지아니호고그
 저주리다호고가사와셔장을드리고레호거늘대종이소우를명호사보살을붓드러전
 에올나이로사대집이만승련조로빈한현중의거슬그저는박지아니할거시니낮스치
 갑을주고야현장을줄거시니사양치말나호시고이에대감을명호야갑을차져주라호
 시니보살이사양호다가못호여사레호야갈오티빈승이폐허우리법을공경호심을감
 응호음고또호법사에덕이높음을감격호여그저주려호고말원이오니결단코갑을박
 지아니호리이다대종이그뜻이구름을알호사즉시광녹사를명호야쇼찬을차려디접
 호라호시더니문득그중이잔대업거늘군신이모다부첸가의심호더라대종이즉시위
 중과소우로현장을불너티니에드러오라호여이로사티네주야로정성을지극히호야
 무차티회를호되갑을길이업셔호더니호괴이호중이가사와셔장을가졌스되갑이
 철천량이라호기로집이사셔너를주려호더니그중이그저주고문득잔티업스니이부
 첸가녀겨너를주노라호시니현장이고두사은호고바다입으니과연오식의괴이호빛
 이괴이니즌짓씩업슨보비라현장이가사를입고셔장을집호며대종제호직호고저조
 거리로가니공후부마며티소인민이이로타라한이하계에너려왔다호더라절에도라

오미제승이 마저 왕보살이 수륙을 립하여 계시다 하더라 현장이 표를 올려 대종께 무척
 티회함을 주하니 대종이 친히 분향하리 장안벽성이 모다 구경하더라 잇셔 보살이 도
 지묘의 숨엇더니 목탁다려 왈 오날은 무차디 회가 마지막에 맞치리니 우리도 혼변변
 하여 빈병결승의 모양이 되야 디 상국사에 드러가 금선주에 설법하는 것과 또 금선주에
 복이 가사와 석장을 가질지 벽이 잇는가 살펴 보리라 하고 디 상국사에 드러가 모든 중에
 무리에 석겨 금선주의 거동을 보니 과연 현점의 글이 업고 완연 현선골이 오복이 만흐며
 덕이 높고 디 득훈법사라 현장이 보티에 올라 대종을 다리고 설법하거늘 보살이 보대
 에 나아가 쇼리를 놀혀 왕화상의 이르노는 법은 좃 권이와 저 근법이니 큰법을 듯고 조하는
 다 현장이 대희하야 급히 이르나 합장하 고 왈 스승님 아제 즈물나 뵈온 죄를 사하소서 중
 의 강하는 법이 저 근법이라 하시니 큰법을 가르치소서 보살이 르사 대법사에 이르노는 법
 은 저 근법이라 능히 정도를 벗쳐 세아 되미져 어 고 혼도 능히 제도 하 못하 고 혼 갖제 불만
 청비할 샤름이라 다키 큰법이 잇스니 능히 무주 고 혼을 제도 하 며 던 당에 올니 고국 티민
 안하리 라 하 고 정히 말할 사 이에 순경하 는 관원이 티 종 세 주 하 되 현장 법사 묘 훈법을 강
 하 더니 혈버 손 중들이 와 못하 게 어 드러 이 는 이 다 대종이 로 하 사 잡아 오라 하 시니 못 중
 들이 잡아 오니 그 중이 불비하 고 불공이 같 오 대 폐하 무슴 말을 못 고 저 잡아 오신 닳가 태
 종이 아라 보시고 같 오사 되네 전일 가사와 석장을 드리는 선사 안닌 다 보살이 이 로 대
 로 소 이 다 대종 왈 네 수륙에 왓슬 전대 지만 먹을 샤름이라 무삼 일 노 선사의 강하 는 법을

총찰하여 큰 불사를 그릇하 는 다 집이 다 제 크게 수륙함은 무량한 중성의 고 혼을 제도
 조하 노라 보살이 이 로 대 현장 법사의 강하 는 법은 적은 법이라 고 혼을 제도 하 야 던 당에
 올니 지 못하 리니 빈승의 게 큰법이 잇스니 능히 고 혼을 던 당에 올니 고국 태민 안하 실지
 라 잔코 자하 는 이 다 대종이 대희하 사 왈 큰법이 어대 잇는 노 보살이 이 로 되 큰 법은 서역
 던 족국 대외 음사 석가 모니 불의 게 잇스니 능히 백만 성령을 제도 하 며 하 늘 덩을 복이
 잇스며 자 옥화 화를 면하 시리 이 다 대종 왈 네 능히 석가 할 쇼나 보살이 다 로 대 날 마 다 법
 하 거 날 엿지 모르 리 오 대종이 같 아사 대네 보대에 가 법사를 가 립쳐 큰 법 강함을 바라 노
 라 하 니 말이 맞지 못하 야 보살이 공중에 올라 오 운을 라 시고 본 상을 닌 여 버들 가지에 싹
 천 유리 병을 들고 목탁은 쇠막대를 들고 외섯스 며 상서로 온 불근 과 운과 금빛 치원전에
 자 옥하 니 군 신상 하와 모든 중들이 일시에 남 무 관세음 보살하 는 소리 던 지 진동하 며 또
 태종이 문무 백관을 다 리 시고 분향 고 두 하 시니 보살이 점구 을 녀 구름 속 으 로 감추
 시니 금광을 보지 못할 처 에 홀연 반공으 로 좃 초 훈장 글이 나려 오거늘 집어 보니 하 엿스
 되 남히 보타 락 가 산 관세음 보살은 말을 벗치는 니 서던 극락에 팔만 대장경을 석가 모니
 불이 갓만 드러 두 시니 만국이 다 가 저 가 되 오직 중국이 안니 가 저 가 미여 리 동도에 유전
 하 야 억 만 중성을 제도 코 자 하 사 빈승을 보 니 여 경가 저 을 어 진 중을 어 더 오라 하 시니 정
 되 십 만 팔 천 리 니 아 모 라 도 발원 하 야 가 서 경을 닌 여 오 면 제 모 의 삼 성 죄 가 다 슬 혀 지 고
 바 로 극 낙 에 가 북 쳐 되 고 국 태민 안하 야 감 산이 반 석 갖 호 리 니 모 든 화 상 중 에 가 기 를 무

르시되 만일 그릇치 못하면 구췌성령에 온화나고 종사를 보전치 못할가 하는니 경가절
 너가는 종이길에서 고히 할사람을 만나도 두려말고 제자를 삼아 다려가 고의심을 닢지
 말나 할라 하였더라 종이 모든 신하로 더불어 보시고 심중에 되희스즉시 전지를 나
 리스모든 중모힌가온디서던극락에 가여리세 죄을고경가저을 쯔원즈를 초스시나 현
 장법스합장비례와 빈승이 저죄업스와 견마에 힘을 다하여서던극락에 가경을 닢여와
 나라 강산을 반석갓치 할리이다라 종이갈아스디현장법스충성을 다하여 정도외의
 원홀과 산천의 험악함을 해지아니하고 경가저을 쯔원하니 짐이 발원하여너와 형제
 되리라 하시고 현장을 다리고 북쳐압히나아가 절하고 발원하여 제현상이라 부르심
 은엇전일고현장이고 두스은하여왈빈승이 무삼형실이잇삽관디던은이아릿듯망극
 하오니 이번가오미 몸을바려서던에가경을가져다가 폐하의은혜를만분지일이나갑
 삼고그릿치못하오면죽음으로써 북쳐분향고밍제하거늘디종이깃거스흠
 락관을명하여현장의발행날을되하라하시고 환궁하시니진현장이무초디회를맞치
 미모든종이서던에경을가질너간단말을듯고현장다러그행로를무르니현장이답왈
 북쳐의부족도정々하고화상에은혜도지극하시니발원하러가노라모든제스왈스승
 님이그르쇼이다고어에왈서던은도되말며어려온짐성과홍악호요괴만호니사람이
 혼번가미오지못하니이다현장왈니북쳐의압혀서밍서하여충성을다하러하니이다
 오노익은성인도막지못하느이다제스등은염녀말나하고제스들을다리고행리를

초리더라 디종이 조회를비설하고현장을불너보시스천히조서를써서역제국과중원
 군현이호송하라하시고역마흐필과자금바리와금은을만히주시니현장이하직고을
 너나오니라 디종이난여를라시고문무천관을가려문외에전송하실시잔을드러
 주시며왈짐이법스에일홀을갈아삼장이라하니아못췌록만길에조심함을당부하
 시니삼장이스은췌왈이술은불가에경계하심이니먹지못하리쇼이다 디종이사로
 스텍오날은다른날과다르니이제노스양치말고먹으라하신타삼장이마지못하여먹
 더니태종이손으로홀홀음을잡어술에드리치신타삼장이못조오니태종이쇼왈어데
 흥번서던에가미어니씨도라을가삼장이췌왈슈히오면스오년이오더디오면찰판년
 이오니엇지금하리잇가태종이스르스디산천이험악하고도로머니이술은홀을먹고
 라향에질거음을스양하고고국에홀홀음을싱각하라하신타삼장이경계하신타말습을
 세다라사은하고진취도록먹은후하직하고서던으로향하니라

○심삼회 함호혈금성희익 쌍초령익흠유승

각설정관심삼년췌구월망전삼일에삼장이태종제하직하고약간의복을가지고반전
 을슈습하여두상제를메우고빅마를타고길을떠나가니씨정히가을이깊흔지라남
 풍이삽々하여나무뉘히날니며찬기운은스름을침노하느니라행하여공췌쌍에이르
 니이씨흔디당마지막디베라변방직힌총병이며모든중들이흠초어데법스란말을듯
 고공경하여마져원복스의하쳐하고져녀지를파흐후두상제를명하여말을잘먹여그

절에월석이요호호지라종지삼장을써와월석을써여행호여슈리논가더니압해호외
 이잇스되심히험호고슈플이조옥호거날허치며가더니문득글영의사름과말이써지
 니그안으로셔고이호호리나며무슈호외나와스승제조며말을잡아가니삼장이늘
 나호외이호터지고겨오정신을진정호여보니웃듬요괴얼골이홍악호고몸에범의
 죽을써스며눈은등잔갓고슈염이창디갓흔놈이안져쇼리호여알져놈들을써먹을거
 시니동허미라못요괴들이스승제조를동허미거날삼장이망극호여아무리할줄모르
 더니문득호외박게셔드러와보호되웅산군과특쳐사오시나이다호며두요괴드러
 오니웅산군이관거슨몸에곰의털이똥치고가장홍악호며특쳐스관거슨누러벌건
 두쌀이느고덜미가살진거시가장홍악호지라그것들이셔로반겨인스호며웅산군이
 란것이쥬인요괴다려왈인장군이요스이조허잘잇는나인장군이호로되니몸은조히
 잇거니와이군이요스이요괴를엇지호는요웅산군이되왈어드면먹고못어드면못먹
 노라호고셔로말호더니삼장스승제조달너스미몸이가장알핀지라셔로보고슬피울
 거늘웅산군이소왈이동허민놈은엇던것고인장군이이로되이것들이절노공게써졌
 스미잡앗노라특쳐스소왈저놈들을우르게쳐셔손님되접함이엇더호는요인장군왈할
 썩업시흠이너무속호니두놈은이제회를쳐먹고흔놈은두엇다가심스호호술안쥬
 나호조호며드되여죽시호줄을불너회를치라호니홍악호외들이갈을써여들고두
 상제를잡아나려비를싸며사지를갈나머리를물에서셔일시에외먹듯호는지라삼장

이사를보고호호비백산호여아무리할줄모르더니동방이밝아오며하날이러지는듯호
 더니공중으로셔호호로오이나려오니그요괴들이다라나거늘그로오이삼장을그르고
 입으로괴운을너여부니삼장이정신을츠려스레왈엇던보살이완디빈승의성명을구
 호시나잇가그로인이답레왈엇지이리곳기며헛리논어되잇는요삼장이되왈상제
 들과함씨셔런에경가질너가더니이구령에빠져드러웃듬요괴잇스나호는호웅산군
 이오호는호특쳐사오호는호인장군이라호는놈들이못요괴를거느리고두상제를외
 먹듯호니몸만거오사랏고말과조셔논어되로간줄모르나이다로인왈이곳은쌍출령
 이오호랑이구령에잇는줄모르고엇지빠졌는다특쳐스관거슨쇼정령이오웅산군이
 란거슨곰의정령이오인장군이관거슨범의정령이니유복호여스랏도다말과도셔를
 츠조구령박게나와보노고변호여청풍이되여학을타고나라가며공중으로셔호호글썩
 조희를나리치거늘잡어보니호호스되나논래빅금성이러니부러와구호노라호옛거
 날삼장이공중을향호여무슈이스레호고홀노말을타고가니라삼장이심히비곱파민
 망호더니압호로큰범이다라들고뒤호로큰곰이며스오나온승량이들이넙을버리고
 다라오며좌우슈플에셔구령비암이나와물너호는되탄말이넙고호호이지아니호니
 삼장이망극호여아무리할줄모르다가문득살펴보니뉘엿호로셔호호건장호스람이며
 리에표피관쓰고손에강츠란창을잡고소리를우뢰갓치지고오니못즈침이다사
 라나거늘삼장이길가에서합장호고썩러왈되왕아목숨을사로신은혜를스레호나

다하니 기인이 잡앗든 강차를 바리고 나와 붓드러 이르며 왈 나는 손적이 아니라 이 피
아리잇는 사장이려니 성은 유오명은 비흙이 오별호는 진산 태보라 산을 진정하니 두
법을 일코 찾지 못하여 싸라 오더니 예와 장로를 맛날 줄과 약하였스리 오그티의 성명은
무엇이라 하니 노삼장이 답왈 빈승의 성명은 종추알녀니 와티 당황대 흠치어 데로서
런에 비불하고 경가지라 가는 길에 모진 증성의 쓰여하마 죽게 되었더니 태보의 은혜를
입어 호표를 쫓고 잔명을 보전하니 다스다스하여라 하니 비흙이 왈 이 피속에서 살며 짐
성의 디 당어 데면 우리도 호환당나라 비성이라 엇지 공경치아 나리오 오날 사니 집에 가쉬
고니 일찌남을 바라나이다 삼장이 티희하여스레하고 비흙을 싸라 호모를 지나더
니 호연악풍이 이러나거날 비흙이 사로티이 바람 뜻하큰 범이 올거시니 장로는 나의 잡
는 양을 보라 하더니 큰 표범이 정언 간에 다라 오니 과제가 장살으더라 비흙이 소리를
벽력갓치 질으고 몸을 날려 다라드러 범과 어우러져 쓰홀쳐 비흙이 강차를 들어 범을 치
니 그 범이 겁을 뉘여 도로 뛰여 언덕에 올으려하거늘 비흙이 거름을 쌀니 하여 강차로 급
히 치니 그 범이 밋쳐 돌치지 못하고 강차를 마즈 겨구러 지거늘 비흙이 범을 잇글고 삼
장이는 티로와 청하여 호가지로 슈일머 무려셔나라 하니 삼장이 후의를 스레하고 그 용
맹함을 칭찬하더라 이에 호환하여 산아리 이르니 비흙이 면져 집에 드러가거미다려이
로티이 장로는 티 당황대어 데로서 사런에 비불하고 경가지러 가거늘 자식이 청하여 왔

나이다 하니 기피차언을 듯고 깃뼉을 이과지 못하여 이로티니 일이네 부친 죽은 날이니
선수를 청하여 경을 읽고 저하더니 오날 사 장로를 만나니 성각 밝기라 다히이 이르시니
니 일제를 작만하여 경을 읽어너의 부친을 천도호호 후에 보니 미늦지아 닛타하니 비흙이
비록 증성을 잡는 산정이나 본디 효성이잇는 자라로 모의 말을 좃차 향화지전을 작만
흙에 삼장을 머무르더라 날이 점은 후머슴이 범의 고기를 살마 반에 가득 담고 술을가
져 오거늘 비흙이 친히 밋아 삼장의 압히 늦코 간절이 권호티 삼장 왈 태보의 은혜는 실노
감격하거니와 어려서 출가하여 부쳐 세 명세하고 마늘과 파를 먹지아니하며 고기를 뜻
쳐스니 후의를 밋들지 못할가하노라 비흙이 침음하다가 이로대우리는 대사로 삼장의
집이라 고기로 연명하여 지너니 비록 죽순과 말은 나물이라 도다 증성의 기름을 못쳐
말넛스니 쇼찬할 길이 업는 자라 장로를 청하여 국이 미될가하노라 삼장 왈 태보난 염녀
말나 나는 본대 천할스람이라 후이 숨일을 굶머도 능히 견대나니 니일성에 저게하든 공
부를 바리지 못할지라 비록 굶머죽으나 무삼함이잇스리 오 비흙을 장되엿지이런 말습
하노노삼장 왈 태보는 염녀말다 태보는 해를 하늘갓치 입었스니 비록 굶머죽다 범의
게를 녀죽은이도 곳아나나 호라하니 비흙으로 피아 들을 썩지져 알아해는 장로와 결우지
말나 너즈연 쇼찬을 작만하여 장로를 공경하리라 하고 급히 떠나리를 다리고 부여에 가
져 근속을 비번이나 정히 닥으며 조흔 좁쌀을 띠오써서 밥을 짓고 마른나무를 살마 장에
못쳐 삼장의 압해 늦코저히는 옥갓흔 증성의 고기를 먹으니 삼장이 밥을 늦코 식경이나

염하며 저를 폐하온 후에 하날이 점々 저 무러 오느니라 빙흠이 삼장을 인도하 여 뒤동 산저근집에 가니 사면에 군기와 살을 버리고 온갖 짐승의 피 흐르난가 죽과 뼈를 헛치거 늘삼장이 중의 마음이라 오리 잇지 못하여 도로 나오더니 또 흠 무리 스승과 노루 짝이 헤지르니 삼장이 문왈이 노루와 스승이 대보의 집에서 길은 거시냐 흠대 빙흠이 왈 장로는 웃지 말나니 희장안성중에는 금은 모호는 이도 잇스며 필빅 모호는 이도 잇스며 룡스 지어 곡식 싸는 이도 잇거니와 우리는 짐승 길너 두고 비가와 산양하 지 못하면 짐승을 잡아 양식하 노라 하 고 서로 말하더니 도라와 이 밤을 편이 쉬고 잇흔 날 새벽에 빙흠의 모지々를 정이 하 여 제상을 비설하 고 삼장을 청하 야 경을 읽어 망인을 제 도 하 여 지라 하 거늘 삼장이 목욕 제게 하 고 버려 노흔 대나 아가 면저 정구 업진 언을 읽고 팔양 경을 읽으 며 미라 경을 읽어 불법을 갖 초발하 여 망인을 능히던 당으로 제 도 하 게 하 시니 동리 스랍 들이 곳 보며 치하 하 여 왈 가히 존스의 경법은 괴 특하 여 이다 하 고 모다 삼장의 게나 으 가 경을 읽어 망친을 제 도 하 여 요흔 곳에 가게 하 니 은혜 망극하 여 이다 스승 왈 빈승이 무슴 지 죄 잇판 디 이 락타 시 스레 하 는 노 빙흠 왈 거야 에 부친이 와이 로 디 너 희모 조 정성으로 인하 여 조흔 디로 가 노라 하 고 하 늘 노 마 심을 보 앓 고 세 었 더니 또 흠 집안 스릅이 흠가 지 물이 르니 빙흠의 외은 조 열량을 쥬 거늘 삼장이 밧지 안코 왈이 되 물은 밧지 못할 거시니 만일 어엿비너 기 거든 스랍을 정하 여 말니 달 여 드 쥬 라 하 쇼 서 하 니 빙흠의 모 밧 서 쥬는 거슬 밧지 아니 하 니 그 뜻을 알고 일은 지를 정히 하 여 길에서 쓸 거슬 정히 하 며 빙흠을 명

하 여 말니 마 전송하 라 하 니 삼장이 하 직흔 디 빙흠이 로 모의 명을 밧아 두 세가 정을 다리 고형하 여 반일은 가 더니 흠되 하날에 다 하 고 극히 험하 여 가 장험준하 더 라 그 뒤를 받은 을 으 더니 빙흠이 삼장 다 려 왈 장로는 요 히가 라 나 는 예 서 작 별하 노라 하 니 삼장이 말세 나 려이 로 디 티 보 말니 와 날을 보 니 천만 감스 하 거니 와 다 만 뵈이 험악하 니 이 뵈 속을 비 여 보 니 물바라 노라 하 더 라

○데십사회 십원귀정 육적무중

차설 빙흠왕 장로는 모 르는 도 다 이 뵈 일흠은 양계산이니 동편은 우리 데 당이 오서 편 은 달 조의 서히라 감히 디 계를 건너 지 못하 거니 와 다 만 이 뵈히 험악하 여 모진 짐승이 만 호니 요 히가 라 하 거늘 삼장이 사 말을 듯 고 마 음에 무섭고 겁사 하 여 빙흠를 드립셔 옷을 벗고 눈물을 흘니 며 리 별할 지 음에 문득 드 르니 뵈아 리 서 큰 쇼 리로 부르 디 우리 스승 님이 이제야 오시느도 다 하 거늘 삼장이 혼비 빙산하 여 아 모 리 흠 줄물 나 하 거늘 빙흠왕 장로는 놀나 지 마 르 쇼 서 이 는 일 정이 뵈아 리 서 흠속 에 드 려는 흠은 잔 남이 로 쇼 이 다 삼 장이 겨 오 정 신을 진정하 여 문왈 흠은 잔 남이 란 것은 엿 더 흠 것이 노 빙흠왕이 뵈네트 일흠 은 오형산이 러니 지금 곳 처양 계산이 라 하 고 사 인이 이 로 대 넉적 에 서 던 서 역 국 셔 가 여 리 세 오 셔 흐 잔 남이 를 이 뵈아 리 서 갑의 너 히 지 즐 넷스니 일 정 그 것이 오 른 가 시 부 니 다 삼장이 그 말을 듯 고 어 대 가 보 조 하 고 빙 무를 잇 글 고 슈 리는 가 더니 파 연 셔 갑 에 잔 남이 하 는 히 지 즐 너 손을 저 어 와이 디 스승 님 아 엿지 하 여 이 제야 오 시느 잇가 나 를 구 하 여 제 조

를삼아서련에다려가소서하거늘삼장이나아가자세이보니그잔남이부리는쉴족하고
 고셉은야외고눈방울은금빛같은것이허리는돌속에지줄니고허리우는돌밭게났스
 되머리우히는잇기와담장이딩글이자옥호엿고럭아리는잡들이소복하거늘삼장이
 이를보고섰더니빅흠이가가히나아가그풀과담장을다뚫어바리고문왈네무슴말
 을하느냐그잔남이이로티너는아랑곳업스니물너가고스승님만오소서하느니라삼
 장이드티어나가무리왈네날을보와무엇하려하느냐잔남이왈스승님이아니셔련
 에경가질너가시는스승이아나오닛가삼장왈니과연그러하거니와네엇지니일을즈
 서히알며너는엇지흔거스로저리고초를겨느냐잔남이답왈나는오빅년전에대료련
 궁호든제련대성이러니잠간옥황이되어보려다가석가여리세속아이되히지즐엿
 더니저적의관음보살이사되를지니시더니로손다려이로사되니여리척자를밧아서
 려연에경가질니갈사람이중원장안으로조차오리니네마음을용히먹어그종의제즈되
 여셔련에가비불하고경가져다가동도에전하고성공을하면죄는절노슬허지고부처
 되리라하디마음에깃거쥬야기다리더니오날이야오시니날을구하거제즈로다려가
 시면길에서홍호요피와모진짐성을만나도극진이되셔가리이다하거늘삼장이대희
 하야갈오대네이련선심이잇고또보살의가룻치심이잇스면니맛당이구하려나와도
 체도업고가리도업스니무엇으로파서구하리오그잔남왈곳대여도체로파지말고날
 을구하여너려하면이되우히올나가여리금조로쓴부작이잇스니그부작을써히시면

자연나아갈도리잇나이다하니삼장이빅흠다려왈대보는져부작을써여주시기를
 바라노라빅흠왈제날을속이면엇지하리오그잔남왈거짓말아니하오니올나가소서
 하거늘빅흠이삼장으로더부러올나모보니과연여섯조금조로쓴부작이잇거늘삼장
 이셔련을향하여고촉왈동도대당진삼장은님군의명을밧으셔련의예불하고경가질
 나가더니이사에와이잔남을만나니맛당히제즈를숨아다려갈연분이잇거든신령이
 도오소서하며별기를밧고부작을써히니문득일진향풍이사러나며그부작이절노날
 녀하늘노오르며공중에서웨여왈나는제련대성을직히엿든신령이러니이제는대성
 의익이다진하고티통운을만났스니부작을갓다가도로여리세드리노라하거늘삼
 장이사말을듯고공중을향하여무슈사례하고되히나려와대성다려왈부작을써헛스
 니나오라하디티성이티희왈니이제나가면놀나실거시니멀니치어셔소서하거늘삼
 장이오리논치어셔니또웨여왈더치어셔소서하거늘삼장이또오리논가더니과연산
 허러지는듯하더니티성이척갑지환을버서나삼장파흔가지로히힐시삼장이행즈다
 려왈네임의제즈되엿스니성명을무엇이라하는다티성왈성은손이오명은오공이로
 소이다슴장왈너의법명을듯고하노라티성왈전일부처지어준명이오공이로소
 이다슴장왈그일흠이쫓커니와또부르기를행즈라하리라빅흠이슴장의용호제즈어
 들을보고깃거하야슴장을치하호후인하여하직고집으로도라가니라슴장이행즈
 를볼너행리를슈습하여뒤히세우고양계산으로행하여가더니호모진범이소리를지

르고 다라들거늘 승장이 놀나 눈을 등그릇케 쓰고 말세 떠러지니 행조 왈 스승님은 두려
 마르소서 님을 옷이 업더니 할 날이 도오사 이법을 점지하시도다 하고 귀속으로 쇠막
 티를 뒤여가지고 왈 내 보비를 오릭년을 쓰지 못하였더니 오날이야 시작하리라 하고 범
 의게 다라드니 그범이 발톱을 춤추며 슈과람하고 달아들거늘 행조 소리 지르고 쇠막티
 를 두르며 다라드러 티골을 세치여 죽이니 츠시 승장이 인사를 겨오쳐 보고 스사로 해
 오디 전에 유태보는 범잡기를 잘하더니 행조는 가장기 득하디고 고이에 칭찬하기를 마
 지 아니하더니 행조 티희와 범의가 죽을 벗겨 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리우고 승장을 모
 셔 마더니 승장이 문왈 앗가 쇠막티가 어대셔 낫는뇨 행조 답왈 이 쇠막대는 부대 동희 룡
 궁에 잇든 신진철이 요일명은 여의금조방이라 하나이다 제 조슈렴동에 잇슬 제 룡궁에
 가아사와 룡궁의 대료하니 그 쇠막대는 사람의 뜻과 같하여 적으라 하면 적어 바늘만하
 고 크라 하면 쇠막대 되어 귀속으로 너허가지고 쓰나이다
 차설행조 승장을 의시고 갈시이셔는 추말동 초라나 무늬 혼다 떠러지고 눈을 쓰지 못하
 게 바람과 눈과 혼가지로 사람의 기침노하니 승장이 치음을 무릅쓰고 길가더니 홀연 외
 속으로 서 흉악한 강도놈들이 무슈이나와 창금을 들고 다라이로 대져 중놈아 행리와
 말을 우리 세드리고 가라 하니 승장이 놀나 아모리 할 줄 모르거늘 행조 왈 스승님은 놀나
 지 마르소서 저놈들을 쳐치 혼을 보소서 하고 귀속으로 쇠막대를 뒤여 쌍히 찌고 일오
 되니 희도적놈들은 줄거시 업스니 이바늘이 나가져 가라 하고 그 성명을 무르니 제적이

답왈 우리는 본디 이 산중에서 즈름성이나 잡아먹는 영웅이라 네 무승용함이 잇관디 날과
 희롱하고 조하나 나 행조 소왈 네 영웅이라 하니 이바늘을 능히 들면 님히 리를 다 주리라
 하니 제적이 웃고 다라드러 들고져하니 잠자리 태산을 움작이 난듯하거늘 황겁하여 모
 다 다라나니 행조 싸라가며 낫치티골을 쳐죽이고 삼장을 보와 왈 제조 그놈들을 다 쳐
 죽이고 옷을 벗겨왔스니 스승님은 길을 가사이다 삼장이로 왈 네가 장사 오나 온놈이로
 다 사람이 비록 도적이니 죽일 죄 업거늘 네 슈단이 비록 장하나 인명을 이렇듯 살히하니
 출가한 사람의 도리는 기암이 도상할가 두리나니 엇지 출가한 사람의 본의 리오 맛츠니
 사람이 업슬 만정 뒤잇더면 널노하여 금악명을 실을 썩안나 엇지 님들 성명을 보전하리
 오행조 왈 손이 오릭년 전에 화과 산에서 요괴 되어 조종티 왕이라 할시절에 사람을
 만히 죽여도 지금 관개치안는지라 무삼 염녀하시리 잇가 혼디 삼장 왈 네 비록 전에 살
 성을 만히 하였스나 이제는 출가한 사람이라 부처의 경계를 드렸스니 엇지 미양 못쓸마
 음을 먹는다네 할 날을 속이고 스승을 업슈이녀겨 만홀하다가 오행산에 지졸년 화를 목
 전에 잇슬 썩아나라 기리 지옥에 고초를 밧으리라 하니 오공이 사 말듯코로 왈 님스승님
 을 위하야 도적을 쳐죽였거든 엇지 이렇다시하시니 잇고 님서련에 경은 날희고 마음디
 로 가리라 하고 이에 한번 근두쳐하날 노을가니 가는 바를 모를너도 종적이 업는지라 아득히
 간디 업고 다만 동다히로 가노라 쇼리 만들니 거늘 두로 불너도 종적이 업는지라 아득히
 머셔련을 엇지가 리오 속절 업시 범의 밧이 되리로 다하고 혼자 행리를 슈습하야 푸키를

매고말을잇글고쳐량이가더니되기슭으로흔튼은할미비단장삼과금수파하나홀가
 저고오거늘숨장이말을쌀고힘々셔니그한미왈어티로셔오는장로완티흔저쳐량이
 가노노숨장왈다만흔제저를다려오더니완만하여경계를뜻지아니하거늘두어말을
 썩즈치니성녀여다라났스니아모티로잔졸물나쳐량이가나이다그한미왈니게흔저
 식이잇셔중이되엿더니오리지아나죽엇기로내설위져가졌든비단장삼과금수파를
 가지고져잇든절에가울고가더니화상을보니저식과갓흔저라만겨와이겨슬주어
 그제자를넘히고쓰이게하노라삼장왈은혜는감겨하거니와제자업스니뉘를쥬리오
 쓸티업스니감히밧자못하느이다한미왈그제자어티로가더노삼장왈흔빈근두쳐가
 미어티로잔졸을모르고다만구름속으로가노라하느소리동다히로나더이다한미왈
 등다히로갈티업고일정통궁으로긋슬거시니저잡아올거시니잡아오거든이장삼과
 금수파를씨우고넘히며리로히는진언을염하여읽으면버셔나지못하코공순하리라
 하고진자바를가뜻쳐왈이렷게하면그제야가히복종할거시니이진언을감안이외오
 대성심도누설치말고조심하라하코진언을외와일으거날삼장이뜻기를다함의문득
 관세음보살인줄알고염하야사례하느그한미홀연변하야일도금광이되여동다히로
 가거날삼장이동으로향하야합장비례하코비단장삼과금수파를수습하코보살에가
 뭇치셔는진언을염하야마음에삭이니라이씨행자삼장을리별하코근두쳐동양대해
 로가셔바로수궁에드러가니룡왕이경문왈저적에드르니큰환난을만나게시다하더

니큰익을버셔나다시선도를닷가고향으로가시는가행자왈니이제는화상이되엿는
 이다룡왕왈무숨연고로화상이되엿는잇고행자왈남히관세음보살의권으로셔련에
 경가질는가는당중의제저되엿는이다룡왕왈스오는일을바리고용흔티는가셔
 니엇지셔련으로가지아니하코동으로가는노행자왈그당중의제저되여가다가도져
 을맛는며경계를모르고니다섯강도를쳐죽이니살성한다하코썩지즈미니로하야져
 를바리고니잇든화과산으로가라하노라하거날룡자룡손이츠를드러티접하더라행
 자문득도라보니벽상에흔죽저를거릿스되문혀진다리에흔스람이신을드리는모양
 을그러거날오공이문왈이엇진그림이니잇고룡왕왈벧한느라스람장량이문혀진다
 리에와황석공을만느니장량의거동을보려하야황석공이신을세번버셔느리치니
 당량이세번을집어다가신기오되조금도태심을느리지아니하니화석공이그착흔스람
 인줄알고드티어제저를숨아던셔병법을가릇쳐흔나라를도와티공을일운후버살을
 바리고황석공을조차스니그티이제스승을바리고화과산으로도라가면흔갓요괴될
 썩름이오부처의정과에도라가지못할거시니벧스람의태만치아니하든일을싱각하
 여마음을도로혀미엇지아람답지아니리오오공이스말을듯고침음반향에말을아니
 하거날룡왕왈티성은싱각하야잘치하코전정을그릇만들지말나오공이셔달아이
 에룡왕을하저하코슈정궁을셔나구름을타고오더니남히관세음보살을맛나미보살왈
 오공아네관세음보살이비로라네스승을바리고어티로가는노티성왕보살님은혜를넘

스와 당중에 제즈 되여가더니 스승님이 오공의 얼굴을 보기 실패하고 되쳐 거날 제즈
 로 하여가더니 도로 차져가거니와 손이 스승을 엿지 업슈히 녀여 보리오보살 월네가
 장성 마른 체하고 스승을 바린다 그리말고 서련의 가경가져다가 동토에 전후 부쳐되
 라하시고 남히로가시니라 되성이 보살을 하직하고 도로 삼장을 차져가니라 이씨 승장
 이길에서 바장이니 아모리 할 줄 모르더니 오공이 구름에서 내려와 절하고 월 제즈 앓가
 벗을 차지라가니 동히 룩왕이 차를 권하거늘 말하다가 오니 이다삼장이 반겨 왈 출가호
 스름이란 거시거지 말을 못하거늘 네 룩공에 못다하니 엿지 날을 속이느다 행즈 소왈 제
 즈 혼 번 구름라 면 심만 팔 천리를 순식간에 가거날이 만 룩공이 야젓집이나 다르릿가삼
 장 왈 너는 나를 바리고 룩공에 가 조흔 음식을 어더 먹고 왔거니와 나는 혼즈 비 곱파 견디
 지 못하노라 오공 왈 아모티 나가지를 어더 오리 이다삼장 왈 포키에 뉴태보의 모친이 쥘
 미시잇스니 금바리의 물을 썬오라 행즈 바리를 닦고 포개를 푸러보니 비단장삼과
 금슈파퇴이 거날 오공이 손으로 뒤적이며 조히너겨 왈 당나라에서 온 거시니 잇가삼
 장 왈 닦절머셔 비 불하고 경녀를 제쓰고 닦든 거시니 네 닦고 행즈 면 쥘려니와 행여 닦고
 쓴치다라느려 행면 속절 업시 일호리니 엿지 하리 오행즈 쇼왈 미양다라느리 잇가이 제
 논 밋으리다삼장이 드티여 쥘어 왈 쥘기는 쥘려니와 맛지 아니 할가하노라 행즈 전에 입
 든 퇴적삼을 닦여 디혀보니 맛치 호티셔 맛친 것 같으며 장단이 조곰도 다름이 업스니 행
 즈 또 금슈파를 들어쓰고 조화하거날 삼장이 혼 번 시험하려하여 진자바를 염하니 행즈

머리 압파대 골々々 구을며 살거지라 하거날 삼장이 짐짓 그하는 모양을 보려하여 다 흠
 々々 녀으니 행즈 손으로 금슈파를 쥘러 하거날 삼장이 버슬가 두러 워진언을 썬려다
 니 금슈파 절노살에 박히는 지라 행즈 돌에 머리를 문지르니 삼장이 행여 상할가 두려 또
 진언을 녀으니 행즈 얼굴이 별거하여 압품을 견디지 못하여 하거날 삼장이 잔잉이 아
 라진언을 곳치노라 하더니 행즈 그제야 저기나 호미삼장 다려 왈 이진언이 하도 영험하
 니다시 녀으쇼셔 어디 보사이다삼장이 또 녀으니 행즈 약 흠을 견디지 못하여 손을 헤쳐
 흐며 왈 녀지 마르쇼셔 승장이 진언을 곳치고 월네이 제도 교령을 듯지아니 코 무례히 굴
 다 행즈 감히 거사리 지 못하며 녀므로는 공승하나 속으로 못쓸 심장을 닦여 귀로써 바날
 을 닦여 급히치고 행즈 거날 삼장이 황망이 진언을 또 염하니 행즈 견디지 못하여 쇠막
 대를 쌍히 바리고 손을 움잡이지 못하거날 삼장이 더욱 녀기를 마지아니니 행즈 비리 왈
 이 제는 스승님을 아랏스니 죽으라 하셔도 죽으리이다이진언을 닦가 와셔가 뭇치든 잇
 고삼장 왈 한々미가 뭇쳐너를 쓰헛노라 행즈 왈 한미가 일정 관음보살이니 엿지 못
 쓸진언을 가 뭇쳐스 탐을 희하리오니 관음보살을 차져 원슈를 갑호리라 하고 가려
 하거날 삼장 왈 네미 후흔 잔남이로다니 보살 제진언을 비화너를 제어하거날 네 감히 갖
 다 죽고 행즈 나나 행즈 을 하너겨 그제야 슬피 비리 왈 이 제는 스승님의 영을 좃차 편할 썬
 를 피실 거시니 그런진언을 읽지 마르쇼셔 손이 물을 썬을 이리다 하고 금바리를 가지
 고 물을 썬미시를 타삼장의 게드리고 서련대로 행하야 나가니라

제십오회 사반산제산암우 응수간의마슈강

차설히즈스승다리고셔호향하여갈시차서는계동이랍흔외에빙설이스람의배
 를사못더라삼장이히향여흔외에이르니물흘은소리느거날슴장이히즈를불니문
 왈이김흔응동에물쇼리느는다히즈왈이곳은사반손이니이되아리응수간이란물이
 잇셔머지아니향여그러한가시부이다향고스승제즈물가의나아가스면을살펴보니
 건널비업는지라정히물가에셔바장이며근심하더니홀연물속으로셔고히한소리나
 며유룡이발톱을버리고언덕에치다오르거날히즈급히삼장을안고다라나니그룡
 이말을길마지은취삼키고물노드러가가거날히즈놓흔봉에올나보니히리는다잇스되
 말은잔대언거늘히즈왈스승님은근심마르소서제즈어더오리이다향고소리지르며
 썩어나려가더니문득공중에서웨여이로대어데성승은우지말고되성은성니지말
 나우리는관음보살의시기신장이라니대성을구하려왔노라삼장이듯고황망이
 절하거날히즈왈여등은엇더흔신장인다모다일흔을일이라신장왈우리는육정육감
 과오방거쳐와스치공조와스심팔가랍신이라니날마다니희를보호향여슈직하노라
 히즈왈뉘라셔오날々호송차지노오방거쳐와오날은금두거쳐차레이라우리슈야로
 떠나지아니향나이다행즈왈오작금두거쳐와륙정신장이우리스승님을보호향드
 니제로손이물에드러가말을차져오라육정과체와그리향리이다삼장이마음을진정
 향여바위우에안져행자를분부향여말을차져오라향니행자웃을거드치고물에드러

가룡을썩지니잇세유룡이삼장의말을잡아먹고물속에업씨엿더니행자의썩짓는
 소리를듯고대로향여물밖게나와뚝여다라들며행자를물녀하니향자다라드러쓰호
 리룡이능히당치못향여물속에드러숨고나지아니향거날히자물가흐로돌며무슈
 히유향니룡이귀먹은체향고나오지아니향거날히자할릴업셔도라와삼장을보고룡
 이물가에나지아님을말하니슴장왈네미양룡호를잡항복받는다향더니오날은엇지
 그룡을항복받지못향나노히즈잇세유룡을잡지못향여정히무류향는차에스승의오
 금박논양을보고분과하날을썩칠듯흔성이불이듯향니드대여쇠막대를두루고물가
 에다시이르러물얼니는진언을넘으니물이얼니거늘바로룡잇는대드러가소리를크
 게질너왈이몸쓸업축아네감히우리스승의말을잡어먹고이갓치룡녘이물밋헤업디
 여숨어잇고나지아니코쓰호지안이향니이제너를쳐죽여말의원슈를잡고니분을풀
 니라향고다라드니룡이능히되적지못향여즉시변향여적은비암이되여슈풀속으로
 다라나니행즈쓰호다가룡을일코도지신을불니문왈네바로이르지아니향면쇠막디
 로짓치리라이물속의든룡이엇던몸쓸룡이완티우리스승님의말을잡아먹고이물
 속에다가이제와쓰호고즈향되룡이당치못향여다라났스니어디로가는다도지신이
 썩며레향고왈디성이오히산에잇더니이제이곳의와룡향고쓰홀일은무삼뜻인고히
 즈왈로손이남히관음보살의명을받아당중의제즈되엿노라도지신왈이물에본디룡
 이업더니져지음게관음보살이런명을받즈와유룡을잡아이물에너혀서련에경가질

너가는당중을기다리라호되그룡이있다감스탐을잡아먹더니티성의게무레히구으
 또다행조왈그룡이날과두번쓰화당치못하미비암이되어풀속에드러갔스니간곳을
 썰니일으라도지신왈티성은성니지말나이물가에궁기승스하여후바다흐로통하
 고심히광활하니티성의수단으로잡을길이업스니관음보살을청하여가히잡으
 리라호더니홀연공중에서금두계체왈티성은잠간머물스니남히관음보살을청하
 여오리라호고구름을타고남쪽으로가날행조두신령을불스스승님을잘되시라호고
 물속으로들며룡을찾더니금두계체가산에가해안을보고삼장의곡절을저서이
 르니해안이드러가더니이윽고보살이나와금두계체다려삼장의잇는곳을무르시니
 거체보살세례호고전후슈말을일사이고호되보살이해안과금두계체를다리고스반
 산에와나리미러보시니행조물가흐로돌며보살들무슈히쑥짓거날계체를불너행조
 들부르라호시니행조성니여공중에뛰어들나보살들보고즐왈나느드르니부처라
 는거슨용호마음을먹고어지다호더니엇지날을허하라호는다보살왈네목숨을살은
 은혜는스레치안이코도로허날을원망호는다행조왈엇지당중을가릇처머리를압
 파못견티게호고이갓치조룡호시니이제로서벗겨주소셔아니벗겨주시면결단코금
 조방으로쳐죽이리이다보살이소왈금슈파곳아니면너를엇지제어하여휘이리오금
 슈파는여리세셔슈신거시라는거니와여리도마음티로못벗기스절노버슬날이잇
 슬거시니정성것공부호여성불호라니엇지알니오행조성을참지못하야알져죄지은

룡을이물에살너두어미양스탐을잡아먹게호니부처의일도그러리오보살왈져룡이
 죽게되엇거날니상련에아되고이물에두었다가경가질너가는당중의말이되어가게
 호였스니스승을태와가라죽은말은범상호말이라천산만슈에서련들달치못할거
 시니너는모르고썰죽호부리로말을되는티로니며날을쑥짓는다행조왈보살이말잘
 호는체호니로손이다시말호지아니호거니와용을어셔말을민드르스승님을태와
 가게호소서보살이스방게쳐로용을불너오라호시니게쳐공중에올나웨여왈용
 티조는관음보살이와게시니빛비와외오라용이변호야박의로인이되어보살세와
 뵈고왈죽을목숨을보살의은혜로살너니시니물속에서경가질너가는스탐을아모
 리기다려도지금까지종적이업셔민망호여호옵더니보살이엇지와계신잇고보살이
 행조를가릇쳐왈이거시경가질너가는당중에말을잡아먹다호니그어인일고룡이머
 리를속이고왈과연비곱파먹엇습거니와이화상과싸화두번피호여갑히드러가숨엇
 다가이제야오나이다저화상이일직성명을이르지아니호니경가질너가는사름인지
 엇지알니잇고오공왈네저리말명호거니와니아모리달나호였스네어이무레히구
 려스노용룡왈네말만달나호였지조금이나당중에말이야호였스나보살왈져잔날이
 강악을유제호니너다려잔스설호라호스나급히말이되어삼장을티와가라호니행조
 가장깃거닷도지아니호고물너셔거늘보살이용을잇글고먹아리여의쥬를앗고버
 들가지에감로슈를못쳐동에썰리고진언을염호니룡이변호야박마되여셔거늘분부

하여 각별조심하여 네 당중을 되셔가 되티심을 너지 말고서 언에가 공을 일우면 이 일골
 을 벗고 부쳐되리니 용심하라 룡디 머리를 낫초고 경계를 뜻거늘 보살이 핑즈를 마즈 왈
 이 말은 네스 말이 아니라네 보왔느니 스승을 티와 가라 하고 구름 타고 남히로 가려하거
 날형조보살을 붓들고 왈로 손이 아마도 못가리이다 서던길에 모즌 증성이며 흥악호요
 괴만호니 엇지보전하여 같이 잇고 보솔왕싱심도 티심을 너지 말나서 언을 단너 오면부
 처되리니 만일 급흔 썩잇스면니 구하여 주리라 하날과 쌍을 불너도 너오리라 하시고
 버들 남세 흘썩여 핑즈를 주어 왈어려운 썩에 터럭을 빼혀 변화하면 그 속에 무량호조화
 잇느니 아모려나 핑즈를 힘써하라고 나가 산으로 가시거늘 핑즈 룡마를 잇글고 삼
 장잇는 디 이르러 스승님아 말을 어더왔느이다 삼장왕이 말은 어디가 어더오나뇨 핑자
 왕이 말이 일흔말과 엇더하니 잇고 삼장왕일흔말과 비하면나 혼듯하도다 핑자보살의
 경계하든 말숨을 일々히 살오니 삼장이 놀나이로되 보살이 날을 회개아니 혼다 핑자왕
 보살이 발서 남히로 가시니이다 삼장이 남히로 향하여 스레하더라 옹공이 핑리를 슈습
 하여 서던티로 々향할식 삼장왕이 말이 길미업스니 엇지하리 옹공자왕스승님은 일모
 르난 스승님이로다 하더니 물우에서 어옹이 혼썩을 살고 슈류로 오더나 핑자 반겨
 외여 왈져 늑은어옹은 밤비오라 우리논서 언에 비불하 고경가 질너가는 스람이 러니
 물을 건너지 못하여 민망하여하노라 그어옹이 즉시 썩을져 오거날 핑자 스승을 다리
 고 썩에 올으니 어옹이 썩니져어 핑하여서 편 언덕에 다히니 삼장이 핑자를 분부하여 언

가를 주라 하디 그어옹이 썩을도로져어 가며 왈 우리는 선가 밧는 스람이 아니라 하거날
 삼장이 무슈이 스레하니 핑자왕부즈럽시사 레치마르 소셔 스승님은 모르셔도 손은
 아나니 이거시 응슈잔슈신으로 서 산신과도 지신으로 더부러 어옹이 되여 우리를 건네
 엇스니 엇지 돈을 밧으리 오삼장이 반신반의하여 핑자를 짜라티로 々오니 히는 서산에
 걸넛고 찬바람이 소々하더라 삼장이 말늘 모라오리는 가다가 멀니서 보나 나무슈플속
 에 초옥이 은々이 되거날 삼장왕져 비는 곳이 인간인 가지부니 하로 밤자고 가자 하디 핑
 자머리를 드러보고 왈 묘당인 가지부의 다삼장이 말게나려 묘문에 나가니 문우에 리
 스쳐라 썩고 혼로 응이 목에 염주를 걸고 합중하 고 스승제자를 마자 안에 드러가 좌정후
 동자를 명하여 차를 드릴시 삼장왕이 곳을 엇지리 스쳐라 하나뇨 로 응왕이 곳은 서번합
 이라 하나니 마을 스람이 모혀스시를 향화하면 오곡과 녹축이 번성하나이다 삼장왕 반
 승은 동도티 당국에 잇습더니 언자의 명을 밧자와 서 언에 비불하 고경가 질너가 더니 날
 이저 무렷스미하로 밤을 자고 가려하나이다 로 응이 동자를 명하여 저를 정히하러 왔거
 늘 스승제자면 고스레 하디 로 응이 답레 왈 너집이 빈곤하여 티스를 관디치 못하니 슈인
 의 마음의 미안하도다 삼장이 사레하더라 핑자 문우의 결난바를 디여 말목을 리거늘로
 인왕이 말은 도적현말이 지 핑자로 왕이 늘근거사 리도 모르고 말을 무레히하느다로
 옹이 소왈 도적현말이 안이면 길마와 굴레 업시와 남의 바로 써미니도 적할시 적실하도
 다 삼장왕이 제자 광인이니로 선성은 허물치마르 소셔 빈승이 처음에 타고 오든 말은 룡

이 잡아먹으니 우리 제자의 신통한 수단으로 남히 관음보살을 청하여 오니 보살이 그 룡
 을 잡아 빅마를 밧드려 주시미 이르러 무로 굴레와 길미 업는 지라 엇지도 적하엿스리 오로
 요왕이 절머서 말감을 만히 주고 사셔라 고단이더니 일직이 죽어 버리고 하도 심스름이
 묘당에와 향화를 가음아더니 말세 지엿든 길릭오 자국에서 어든 비니가 장보 비라 평성
 에스랑하더니 장로의 말을 드르니 관음보살도 또한 구함이 잇거날 님들 엇지 보조아니
 할리오하고 길마를 님이 오니 삼장의 스승 제자 빅 비스레하고 즉시 말세 지으니 서귀방
 광하거늘 삼장이 더욱 깃거로 용을 리별하고 묘당으로 나올서로 용이 스미로셔 말치를
 님이 주어 왕이 거시귀특하거가 장조호니 마자 주노라 삼장이 스레하고 도라 오니로
 용도 간디 업고 묘당도 간디 업스며 공중에서 이르디우리는 나가산도 지신이러니 보살
 의 명을 밧자와 길마와 치를 주고 가노라 서승은 조심하거셔련으로 행하거며 뒤심치 말나
 하거날 삼장이 절하여 왕제자는 이잇셔도 망을 업셔 존위를 몰나 퇴왔스니 죄를 스하
 소셔하고 머리를 좃거늘 행자왕스승님은 슈고말고 어서가 스아다 삼장왕너는 셋스지
 서스 절도아니하고 몸 쓸말만하니 그 무삼도리 노행자왕그도 지신을 쇠막디로 디골을
 치라하다가 심분 짐작하거그만 두거든 손이 무삼 절하리잇고 로손이 자초로 옥황제
 논머리를 굽혔거니와 그 밧근지방 귀又道이다 슬장이 님에서 말이 아니나 더라 삼장이
 드디여 말을 타고셔련으로 행하더니 관음이 홀스하거겨 울이 진하고 봄이 도라오미 춘
 풍이 화회를 스름 정회를 감동하느니라 스승 제자 열니 바라보니 뵈오목다리에 초목

이 무성할곳에 누가이 표묘하거늘 삼장이 오공다려 문알져되는 거시아마도 춘락인간
 인가 시부니가 보라 행자왕 춘락이 안이요 절안가 시부니 드러가자고 가스이다하고 말
 을 노화그곳으로 향하거가니라

○대십륙회 관음원승묘보피 후풍산괴절가사

차시 승장의 스승 제자 말을 몰아던 문에다 스르니 전각은 층층하고 선당은 첩첩하거차
 속취죽이 그옥이 들녘넛는 디불근 안기 들녘스니 파연귀특하고 괴려하더라 승장이 말
 매나려 문을 들고져하더니 안으로셔 한화상이나 오다가 승장을 보고 마자 드러가좌정
 하미차를 드리고 온연고를 무르니 승장이 답왈 빈승은 디당 황데 흠차어 데성승으로셔
 셔련에 비불하고 경가 질너가더니 날이 저물되 하로 밤지니고 고져하노라하고 말을
 드려미라하니 행자말을 잇글고드러오미 제승이 행자의 일골이 뵈흠되 공가 흠을 보고
 놀나왈 저 중은 흥피망치 흠놈이로다 승장이 쇼리를 나즉이하거왈 제자스오나오니
 셔날가하노라 그 화상왈 비록그러나 얼골이 하흠악하니 중갓지아니하도다 승장왈그
 러나 마음이 하용하고 저 조착하니 쓸곳이 만흐니라 그 화상이 웃고 승장을 다리고 스문
 을 드러가니 정련에 현관을 달고크게 너즈를 췌스되 관음선원이라하거늘 삼장왈너
 보살의 은혜를 만히 님엇스되 사레치 못하엿스니 스레하리라하거늘 선원에 드러가 비례
 할서히자또하드려와 스승압히셔 중을치고 모든 중들은 북을치더라 삼장이 절하기를
 맛고히자느중치기를긋치니 그 절원 주창로와 승장을 마져왕장로는 이제 뒤방장에가

차를먹스이다슴장이몸을굽혀례하되회상이답례하고좌정후원쥐왈듯스오니
 동도되당황데어데와게시다흐에되오려하고전위하어나왔다다슴장이답왈로인
 을몰나보니죄를스고소서로회상이불감함을이르고왈로야동도에서예오시기몇
 천리오시니잇고삼장왕장에서양계산이오천리오그곳에서흔제즈를다리고합밀
 국을지나두달만에예왔스니게서이곳이륙천리나된다스나이다로회상왕로야발셔
 만리밧게와게시니우리는사문에일성을편하여산문밧글나지못하니이러바우
 물속에셔하늘을보느다르잇가슴장왕원주의놈흐신느히몇치나스니잇고로원주답
 왈미천흔느히일빅철십제로소이다행즈섯다가왈네나히만흔체하여도니일만디손
 즈만하도다삼장왕너느미양남을슈육하느다로회상왕그러면그디느나히얼마느
 요행자왕너느흔하늘에자육하고싸히가득하여일오혜지못하노라노회상이웃고
 도동을불너차를드리라하되도동이차를만호종에담아우반에노화밧드리니밧
 치찬난하더라차를과흔후로회상이문왈로야던도상국으로오시니상국에서과득흔
 보비를만해보섯던잇가무엇이귀하니잇고감히못느니일정귀흔보비를가져왔슬거
 시니흔번구경코자하느이다슴장왕비록그나라에보비만흐나길이며러엇지가져오
 리잇고행즈것히잇다가왈스승님아우리게금란가스잇스니이아니보비리잇가모
 든중이금란가사란말을듯고져마다녕소하늘행즈왕너희무슴일노웃느뇨제승이
 답왈로야보비의가스이라하되웃나이다연이나금란가스잇슬진디흔번구경하사이

다슴장이행즈를잡아당과여왈넛스름이이로되도흔거슬남을외면견물심심하여도
 로혀일논다하니스승제즈홀노왔다가환란을만날가하노라행즈왕스승님은방심
 하소서로손은벼락도두려아니하느니이놈들이야모과나다르리잇가부절업시념너
 마르소서하고푸키를열고금란가스를너여노흐니금광이찬란하여눈이쏘히거늘
 로회상이욕심너어나아드러안즈며칭찬왕제즈년과일빅닐십에전후에넛는가스슴
 빅별이넘으되금일이가흔가스를보긴처음이라진실노지극흔보비로소이다그러나
 제즈연분이업스물설위하나이다슴장이붓드러왕로원주무슴일노설위하느뇨로회
 상왕님의밤이드러스니너말고잠간빌니시면도라가자셔이구경하코앗참에가져
 오리이다삼장이듯고마음에가장놀나행즈를원망하여왈이느다네타시니이를엇
 지하리오행즈왕져것들이무어시그리어려오리오그런일이잇스면로손이다담당하
 리이다시골것들이구경하다가무슴썬잇스리오슴장이마지못하여주며왈도금도더
 리이지말나로회상이직시도동을명하여가스는방장으로드리고모든중을분부하여
 큰평상을버려놋코슴장의스승제즈를청하여전녀져를도히하여디접하고묘흔선당
 을정하야밤을편히쉬게하코방장에드러와도동으로하여곰불을혀고금란가스를들
 고져셔히보니과연던하에무쌍흔보비라로회상이천번이나삼하다가문득동곡하가
 를마지아니하노도동이모든중다려로회상의동곡함을져셔이말하미제승이로회
 상을보고왈가스를밤이시도록보고무슴일노설위하시느뇨로회상왕장구히못봄을

설위호노라제승왕스승님이그르셔이다당중을머물너두고실도록보면엇더할리잇
고로화상왕아모리오리머물너한달을본들나동은반다시도로쥬리니너엇지호변어
개에거러보리오죽어도눈을감지못하리로다제승왕스승님이오리두고보시려호
시면무숨어려오리잇고명일에당중을청하여한달만머물게호후에스승님이실도록
넘고리불호면도호리이다로화상왕안야십년을입은들나동은도로쳐저가리니엇지
호리오호며설위호여머리를기동에부티치고가숨을두다리며밤이깊도록동공호거
늘잇셔광지란중이갈오디스승님이저가스를오리가지못호심을근심마소서자연
도흔일이잇나이다로화상이깃부물이괴지못호여문기계호디광지왕당중은스승제
즈뿐이라만리밧게셔왔스니인스를모르고곤호여잘거시너우리모다창과활과환도
를가지고당중을죽이고릭마와히리를앗고가스는우리집전가지보를민들면누
알니요화상이사말을듯고광지의등을두다리며청찬왕이계교가장묘하니창금을밧
비슈습호여가셔다가밤들거든나아가하슈라할시로화상의시즈도동왕이일이비
록도흔듯하나맛당치못하니스람을죽이미흔적이잇슬것이오또신례를쳐치키어려
온지라나의소견에는당중의자는집현당이외싸로잇스니섭홀만히가져선당전후좌
우에싸코불을노호면슈고안니코절노라저될거시오남이아라도흔적이업슬거시
니이계교가장도호니이다로화상과광지등이디희호여이에디중의게분부호여섭홀
슈운호여숨장의자노방장에싸코불뚝키를의론호더라잇셔스승제즈방장안에서자

더니호즈는본티마음이령호지라잠결에드르니방밧게셔숫두거리노소리들니거날
마음에싱각하되이심야에스름들이이갓쳐숫두거리니일정무숨일이잇도다호고
문을열고나오고저하다가스승님이셀가호여몸을흔드러변호여설별이되여문들으
로나아가보니원절중들이섭홀안아다가스승자는선당전후좌우에싸코불노호거도
를호거날호즈마음에헤오디이놈들이호호마음을너엿스니이노일정금란가스를보
고욕심을니미로다연이나저것들을놀너여셔는못할거시너너지혜로써저놈들을맛
당이화덕진군의게가불우리를어다가속임만갓지못호다호고근두쳐남던문에을
나가니방원슈구원슈로더부러일오디용치아닌놈이왔스니또던궁에변을너려호는
다호즈머리를흔드러왕얼위는관셔호라미양변을너리오급호일이잇스니던왕세아
뢰쥬소서호더니문득던왕이나와무르디오리못보왔더니저지음세관음보살이옥데
제알뢰여금두거쳐와스치공조와늑정늑갑과삼십팔가람신을비려셔련에경가질너
그는당중을호송호여지라호고또드르니디성이당중의제즈되엿다호더니엇지오날
호거이온다행조왕인스는그만두고이제급호일이잇셔왔노라우리스승제즈호절
에서자더니그절에몹쓸놈들이자는방에불을노왔스니만분절박호리후별이왔스니
불피호는불우리를빌니시면쓰고죽시가지오리니행허못밧치면큰일이나게되엿나
이다호고눈을썩바로쓰고성을불갓치너던왕이슬히너겨죽시불우리를쥬며왕티
성의신통으로불을제어호거시어늘무숨일노불우리를가져다가사람을상호오려호

는고하니행조웃고불우리를밧아가지고급히나려와스승조는방집우에을나불우리를
 덮고입으로기운을너여손방을향하여흔번부니문득공중으로쫓치되풍이너러나
 불이바람을뚫쳐원절에당하여스면으로부터오녀러중들이되경실석하여급히제
 간도치우며의복도슈습홀시원절중들이황々급々하여화광을피하여스면으로하여
 저닷더라이적에정남이십리에후풍산이란피히있고그뒤속에후풍동이있고골속에
 하홍악흔요피잇스니신통이거룩하여々려요피를거나리고스더니이날밤에자다가
 보니정복다히로셔화광이하날에다हत거늘마음에놀나싱각하되이반다시관음원
 에셔불이이러났도다하고이에의관을정제하고구름을타고순식간에관음원에오
 니팔백간관음원이다지되었는디삼간선당은불이괴척도업고집우에흔피힘되공갓
 혼거시안조광풍을짓고뒤방々장에난셔괴가밧는는디불썬치가아니하엿거늘불
 을구홀싱각은업고급히뒤방으로드러가셔괴나논곳을차즈니방장가온뒤로셔괴
 가나니이논붓쳐의보비가잇스미불이능히오지못홀이러라고요괴방장에드러가사
 면을삼혀보니한락조우에불근보에싸힌거시잇고여러사람이불을구하노라방이뒤
 엿거늘보를피고보니문득금란가스드러는지라고요괴금난가산줄알고즉시가스를
 거두어가지고구름을타고다라나니라하날이밝을썬에비로소불이셔지니제승이겨
 오스라나져마다가숨을두다려동곡하여져마다지를헛치고금은괴명을찾더라잇
 세행조절을다살나죄를민들고불우리를가지고남편문에을나가광목편왕을보고전

하니편왕왕내용치못하여속히아나가져을가하엿더니즉시가져오니깃거하노라
 그러나잠간물너차나먹고가미엇다하노행지왕이제는전과달나스승님을다렸스니
 결을치못하니후일보스이다하고편왕을리별하고구름타고나려오니하날이밝았
 거늘변하여도로살벌이되어스승자는방에가니삼장이긋셔지코를고을고자거늘
 행지소리질너왈스승님아날이밝았스니그만저소서삼장이놀나이러나문을열고보
 니그런큰절이다불붓터지고다만벽만남았거날삼장이되경실석하여연고를무르
 니행조왈저나간밤에불이나그런방장이다부터나이다삼장왕엇지나자는방은홀노
 붓지아니하엿스며또엇지나논불붓는양을보지못하엿는노행지왕스승님은잠이
 겨워그러하시거니와스승님자는선당은손이구하엿슴을힘입어무사하니이다하
 거날삼장왕나자는방만구하고원절을아니구한다행지왕이제스승님하시말삼이
 을호시니이다이절에키긋튼중놈들이가스를보고욕심을너여우리스승제조를죽이
 고아스려하여방에불을노화살우려하니만일모르더면우리스승제조를죽일시지될
 번하엿나이다삼장이이말을듯고더욱놀나왕그불이그저는불이안인가사람이노흔
 불인가엇지아나노행조왕로손이즈다가밧게서사람이숫두거리난소리를듯고변하
 여살벌이되어문틈으로나아가보니못중들이섭힐선당전후좌우에가득히싸코불
 을노화우리를뒤와죽이려하거늘급히남편문에을나가광목편왕의게불우리를비려
 다가선당집우에덮혔더니그불이도로혀절에당하여라니원절중놈들이망극하여

세간도치우며저마다가삼을치며을고다니더이다삼장이이말을듯고가스를어셔
 저오라하니행즈나와뒤방장에드러가로화상을보고가스를달나하니로화상왈잔밤
 실화홀씨에어뒤로간지모르노라하거늘행즈성녀방장에나와인절종을보고가스
 를츠즈니라하니잇씨모든종들이을고다니다가행즈이갓치곰지아니함을보고저마
 다흔이나라나일시에고두주왈원슈는지은이가갑는다하니우리는간섭지아니코다
 만로화상이광지의씨로써이갓치하엿스니바라건뒤우리등의목숨을살오소서행즈
 쇠막디를드리치며왈이짓질니죽일업축들아잔말고가스를받비가저오라만일디
 디면인절종을다죽장을민들니라흔뒤화상이니다라이로뒤로야선당에서아조념
 녀업시불타죽은줄아랏더니엇지스라나가스를찾는노사람인가귀신인가분변키어
 려워라행즈왈이몹쓸업축들아우리자든선당이랏는가보와라모든중이손흙념물을
 써홀고선당에가보니라기논식으로차지게도그으지아니하엿거늘제승이티경하여
 서로이로뒤어데성승은신승이오행즈장로는던신이라하고머리를조와왈눈이잇서
 도망을이업셔부처님을몰나보앗스니죄를스하소서가스는뒤방에감조왔나이다하
 더라

○ 제십칠회 손행즈티요혹풍산 관세음슈복옹비교

초설삼장이행즈를싸라와허러진법당을지나오더니다만벽만잇거늘삼장이마음
 에척은공여차탄함을마지안코행즈를썩지저왈가스를지금못츠졌스니아마도진잡

아을읽으리다흔뒤행즈이말을듯고더욱성녀최막디를두루고제승을치려하니모
 다겁너여일시에방장에드러가로화상을보고왈당중은신승이라뒤와죽이든못하고
 부리쇼독흔피힘되공갓흔화상이쇠막디를드리치며성이불갓흐여바스려하니우리
 목숨이슈유에잇는지라가스를슈히녀주소서로화상이그런절을일야에다불붓치
 고또금란가스를일코정히망궁하여을고안쫓더니이말을듯고어린듯취흔듯디답홀
 말이업셔머리를기동에부티이저피를흘니고죽으니제승이황々하여을고행자의게
 쌀어고왈로화상이머리를부티이저절노죽고금란가스는간디업스니죽을밧근혈
 일업나이다행자왈너희놈들이도적하여두고이러타시며치는다도동과제승이방장
 에츠즈되가스업는지라행자민망하여하더니삼장이성녀진잡아를읽으니행자머
 리를붓들고디골구름머왈스승님아살오소서하거늘뒤중이삼장의압히가고왈
 진언을긋쳐소서하니승장이진언을긋치니행자이러나쇠막디로제승을치려하거날
 승장이썩지저왈이리무레히구는노니가자서허무를거시니너는잠々하고잇스라
 제승이손을부리며이길왈로야는뒤중의목숨을살오소서이제는바른뒤로고하리이
 다죽은로화상이가스를보고육심을녀로야의자시는선당에불을질너로야님스승
 제즈를살와업시하고가스를아스려하더니뜻아닌선당은타지아니하고난디업는광
 풍이디작하여큰절에붓터스니제승이창황망도하여불도구하여제간도치우노라분
 슈홀스이에가스를일헛나이다행즈티로하여광지란중을잡아너여가리를써저죽이

고방장에 드러가도 화상의 죽음을 쓰러너 여웃을 벗기고 신례를 돌 못등이에 부터지니
문득 프른 일희러라 뒤 감히 치미러 보리오 행조이 육히 생각다가 문왈이 되근 처에 무삼
요괴잇는 노주지 화상왈 못지아니 하던들 생각지 못할 번하엿는이다 예셔 동남다 하로
이 십리에 후풍산이란되이 잇고 그괴속에 후풍동이란골이 잇고 그골에 후풍티왕이라
하노요괴잇스니 우리로 황상이 그놈과셔로 차즈단이며 미양강론하더이다 행조왈 잔
밤에 화광이 춤련하엿스니 반다시 멀니 빛취엿슬지라 그요괴 필연 화광을 뚫츠이 곳
에 왔다 가 덤병일스이에 금란가스 보빈 줄알고도 적하어 간가시 부니로야이 제로가셔
츠조오리라 하고 가려하니 삼장이 갈오더네 가면니 홀노엇지 예셔잇스리오 행조왈 스
송님은 녀네마르쇼셔 신령이가만이드음이 잇슬거시니 방심하쇼셔하고 제승을 불너
왈너 후풍동에 가 단녀올거시니 너희등은 스승님을 되셔 경멸치말나 하고 구름다고 가
스를 차지려고 후풍동으로 가니라 잇썬 후풍요괴 관음던 뒤 방장에서 금란가스를 거두
어가 지고 후풍동에 도라와 상사에 늦코져셔이보니 금은 주옥철보로 장엄할 썬아니
라셔괴 광명이 반공에 어리니 실노지극 할보리라 그요괴 심중에 티희하어 각동요왕
을 청하여 잔치하려 할셔 일흠을 불의희라 하고 자근요괴를 보너더라 츠시행조 후풍산
에 이르러도 지신을 불너 문왈이 괴일 흠은 무엇이며 괴속에 엿더호요괴잇는 노도 지신
이나아와 레하고 왈이 괴일 흠은 후풍산이오 괴속에 후풍동이 잇고 골속에 후풍요괴잇
스니 신등이 거룩하니이다 행조도 지신을 썬져물너치고 호모등을 넘어빙의를 지

나가니 두쌍 돌문을 단々이 닳고 그우에 큰 돌노가로 막고 돌문밧헤 한돌비를 세웠는
티 여섯자를 크게 썼스되 후풍산 후풍동이 라하엿거 날행조 몸을 흔드러 변하어 파리되
여문틈으로 드러가보니 고루거각이 반공에 츠아흔티 창송록죽과 괴회이 초전정에 가
득흔티 헌검은 놉이 청풍벽옥상에 단좌하고 여러자근요괴를 분부하어 각동요괴를 청
하어 왈 간밤에 관음원에 실화하기로 불을 구하라 갖다가 금란가스를 어더오니이느
극흔보리라 명일에 불의희 잔치를 하고져하니 일적이라 힘하라 하거날 잇썬 행조
가스잇는 곳을 알고 도로 문밖게나와 본상을 너외 쇠막티로 돌문을 흔번치니 그돌문이
산々이바아지느니라 안호로셔 호도동이 나와 소리하어 무르되 엿던 밧천 것이 완디 무
섭도 안야 감히 선선의 집에와 작한하노다 행조 썬져왈이 몸쓸 업축아어 너님으로 신
션두즈를 드노느냐 그요괴 급히 드러가거문 놉다려 왈티왕아 화스로 밧게 흔부리 셴독
흔피힘외공가흔 화상이와 가스를 달노하느이다 검은 놉이 성너여 갑주를 갖초고 문에
내다르니 힘조그요괴 거동을 보니 열골은 흉악하고 두눈방울이 벌건거시 후갑 후투고
쓰고 거문전포의 검은 창을 들고 오거날 행조 소왈이 놉은 숭장사아니면 먹만드느놈이
로다 어이저가치검은고그요괴 소리질너 썬져왈너는 엿던 화상이완디 감히 담근체
하고 죽고져하난다 힘조 쇠막티를 들어 썬져왈이 몸쓸도져 놉아 잡말사고네 일을 다
아랏스니 슈이가스를 로야세드리라그렇치아니하면네 목숨을 밧치리라 그요괴 왈
네어너 절종으로 가스를 일코너게와 달나느냐 너가네가스를 도적할제보왔느냐 행조

왕작야에 관음원에 불났슬 제네 뒤방장에 와 도적하여 가지고 못요 괴를 모도와 불의 회
 잔치하 조합을 너드러가서 다아 랫나니 네 손톱만 처나 괴일다 슈히 드리량이 면네 목숨
 을 보전하려니와 불연즉 후풍산을 업즈르고 후풍동을 짓바흐며 너희 요괴놈들을로 소
 업시바아갈오를 믿들니라 거문요괴허허웃고왈이 몹슬 잔남아어 제 밤에 선당집응우
 에올나님으로바람을 불어 윈절을 띠오고한거조를 하거날너괴연가져왔거니와네날
 을닐만너겨간스한주동이를 놀녀달나하난다네바룩슈단이착하나가장사잔남이놈
 이로다네성명은무엇이며로야라함은누를일으미노행조왈네는망울이며렷판티이
 로야를몰나보난다로야의성명을알고져할진티네일으리라나는동도티당황데흠쳐
 어데성승삼장법스의제조손오공행조로야남이시니니저도를일으면네무셔워흔릭
 이훗터지리니엇지하리오검은요괴왈네무슴지죄잇판티이리착한체하논다비록
 로심되나일너든드러보자행조왈이갓흔놈아종용이로야의슈단을드르라로야절
 머셔부터장성불스할지도를비화신동음이가히업셔바람과비브르기를임의로하며
 할번근두쳐심만팔천리를순식간에감으로오릭년전에던궁에티료하고룡궁에작란
 하며명부에돌립하고반도원에반도를싸먹으며육익경장을만히먹음으로옥데로하
 스심만련병을발하사리련왕부조와외부외창으로능히날을잡지못하였스며련라
 지망과티상로군의팔패화로속에들어도능히날을살오지못하여이에제련티성을봉
 하시고반도원에중한쇼임을맞기시니삼심삼련과스히팔황을다니며선션을차즈며

벗을스귀여즐기다가로손이한번영소보전에안고조하엿더니셔가여리의게속은비
 되어오행산에오릭년을잇섯다가이제서련의가비불하고경가질너가노라검은요괴
 제련티성이란말을듯고마음에슬허너거이에일오티네비곱푸니잠간드러가밥을먹
 고다시쓰호조하거늘행조소왈로야는오릭년을먹지아니하여도비곱푸지아니커날
 이덤터된더러온놈은반일을굴머든무엇이비곱푸리오이리용널훗것이엇지제련티
 성을결우려하논다진실노비곱푸거든가스를슈히받치고게으른놈의똥이나오즘이
 나누어먹으라그요괴거짓창을두르고몸을한번뉘여다라나골에드러가문을구지닷
 고각동요왕을청하여잔치하러하더라행조급히싸라가골에다스라아모리쳐쳐도쳐
 여지사아니코그요괴도나오지아닛커늘가스조최를어든말을스승다려일으려하고
 근두쳐관음원에도라오니그절중들이로화상의시례를못고방장에서저저를작만하
 거날행조공중으로셔나려오니제승이마자공경하고삼장은급히무르되네가스를차
 조은다행조왈우리가스논후풍동요괴가져갈시적실하더이다하고드른말과본일이
 며쓰호든일을일사히일으니제승이합장하고머리조아왈이제야가사간곳을아랏
 스니우리등이목숨을살게하엿다하거날행조왈너희논아직깃하지말나가스가로
 야에손에도라온연후에비로소너희등이무스하러니와불연즉심장을너희의게풀거
 시니아직스승님을저와츠를도히하여밤잠고말을잘먹이라하고다시스승께고왈깃
 분괴별드렷슴으로쓰호을긋치고스승님께문셔고하러왔습더니이제도로저저가러

향옵나니 스승님은 기다리쇼셔하고 근두운을 타고 후풍동으로 나가 갈시 잇세검은요
 피각동요왕을청하여 불의회를하러 할시금지장로의게글월을부쳐청하니 향엿스
 되시성응계는돈슈지비하고 디전금지장로의게글월을올리나니 여러번바라지안야
 디접함을넘으니 감격하여 이다밤에불을구하려갓다가한부처의옷을어드니지극한
 보빈고로각동요왕을청하여 불의회를하러하니 부티왕림하여 창례심을바라나
 이다향엿더라행자허우며알그늬은중놈이우리가스를도적향엿도다향고몸을
 혼드러변하여그늬은화상이되어골문밧게가문을열나하니자근요괴문을열고나와
 보니로화상이여날밧비드러가고알금지장로와게시니다그요괴왕글월를가져간지
 오리지아니하여드러왔스니일정간스합이잇도다향고가스는급히감초고로화상을
 청하여드러오라향거늘행자첫문을드러가보니늬은솔과프른디들이잇스며들지
 문을들미정쇄한집에도화만발하고산슈그린죽자하니히결넝거날행자왕요괴놈으
 로셔난가장쇼담향도다향고셋지문을드러가니루디에아로식인궁연의분벽사창에
 셔화부벽을가득이붓쳤스며집네모에풍경을거릿고침향평상과비단금침이가장화
 려정결향더라요괴하당영지하여청중에올나와좌정합의요괴왕작야에시성이장결
 에화광을인하여관음원에갓더니그런큰절이재되고뒤방장에서괴잇기로가보니금
 란가스가장보빅기로가져와이제각동요왕을청하여 불의회를향고져하여장로를청
 향엿더니셔찰을보시니잇가행자왕맛참한가향여이리오다가길에서편지를보왔노

라하니그요괴차를녀디접향더니밧그로셔순행향든근요괴드러와그요괴귀에
 디혀가만이일오디앗가금지장로의게글월를가지고갓든동류를손행자쳐죽이고이
 제금지장로되여왔나이다저기온거시손행자라하니그요괴심중에의혹향여향든중
 초언을듯고헤오디니헬밧게나지아니향도다향고급히창을들어질으려향거날행자
 본상을녀어우려져쓰호니고합이진동향는지라자근요괴녀시업셔향더라그검은
 요괴놈으로검은괴운과모진바람을도향여비사쥬석함에골밧그로니다르니그요괴
 왕오날은느젓스니니일다시쓰호자향니행자왕미양시작만향고승부를결치아니향
 니어니씨에가사를차지리요향고금지방을두루고죽쳐드러가니그요괴또변향여바
 람이되여골에드러가숨고나가지아니향니행자혈일업셔근두쳐관음원에도라오
 니라슴장이행자를불너왕오공아가스를차져오나행자요괴의편지를쥬며왕그죽
 은중놈이요괴를결당향엿스미글월을보녀청향엿거날로손이편지가져가든요괴
 를쳐죽이고변하여로화상이되어가스를차지러갓다가들켜셔로쓰호든일을일으니
 슴장왕그요괴슈단이외와방불향더나행자왕제자와다름이업스니가장넘녀롭더이
 다삼장왕네슈단으로그요괴를잡을슈업스니어니씨에가스를차지리오향고눈물을
 흘니니행자왕스승님은근심치마르소서앗가요괴말을드르니관음보살밧근두려
 오리업다향니니일남희의가관음보살을청하소이다슴장왕가스를일헛스니엇지감
 히오리오셔도록잠을일우지못향더니행자놀나일떠나근두운을타고바로남희로가